
碩士學位請求論文

國民學校 統一・反共教育의
變遷過程에 關한 研究

—統一・反共政策의 變遷과 關聯하여—

指導教授 康 根 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洪 性 旭

1988年度

國民學校 統一 · 反共教育의 變遷過程에 關한 研究

— 統一 · 反共政策의 變遷과 關聯하여 —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提出者 洪 性 旭

指導教授 康 根 亨

1988年 月 日

洪性旭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8年 月 日

主 審 李 萬 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副 審 金 恒 元 

副 審 康 根 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 論	9
1. 問題의 提起	9
2. 研究의 目的	9
3. 研究方式 및 範圍	10
II. 統一·反共政策의 變遷過程	11
1. 第1期: 戰前의 統一政策	16
2. 第2期: 戰後 50年代의 統一政策	17
3. 第3期: 60年代의 統一政策	17
4. 第4期: 70年代의 統一政策	18
5. 第5期: 80年代의 統一政策	19
III. 統一·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	22
1. 教育課程의 變遷史	22
2. 統一·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	24
IV. 統一·反共教育 內容의 變遷過程	37
1. 第2期 教科書 內容의 特徵	37
2. 第3期 教科書 內容의 特徵	40
3. 第4期 教科書 內容의 特徵	41
4. 第5期 教科書 內容의 特徵	45

V. 統一政策과 統一·反共教育의 變遷 比較分析	47
1. 統一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의 比較	47
2. 統一·反共教育政策과 教育 內容의 比較	49
VI. 要約 및 結論	52
參考文獻	55
ABSTRACT	59

表 目 次

〈表 1〉 教科書 內容 分析 카드	14
〈表 2〉 時期別 統一·反共政策의 主要 內容	21
〈表 3〉 1963年度 「반공·도덕 생활」 關聯 目標의 展開	31
〈表 4〉 1973年度 教育課程 道德科 目標中 統一·反共 關聯 目標의 展開	33
〈表 5〉 1981年度 教育課程 道德科 目標中 統一·反共 關聯 目標의 展開	35
〈表 6〉 時期別 統一·反共教育政策	36
〈表 7〉 教科書 改編 過程	38
〈表 8-1〉 第2期 教科書 內容要素의 分析	39
〈表 8-2〉 第2期 教科書 內容의 行動特性別 分析	40
〈表 9-1〉 第3期 教科書 內容要素의 分析	42
〈表 9-2〉 第3期 教科書 內容의 行動特性別 分析	43
〈表 10-1〉 第4,5期 教科書 內容要素의 分析	44
〈表 10-2〉 第4,5期 教科書 內容의 行動特性別 分析	45
〈表 11〉 時期別 統一·反共政策과 教育政策의 比較	48
〈表 12〉 時期別 統一·反共教育政策과 教育內容의 比較	50

I. 序 論

1. 문제의提起

政治的 環境의 變化는 教育環境의 變化를 뜻하며 教育環境의 變化는 教育의 目標와 內容에 修正을 要求한다. 특히 政治教育의 重要한 領域을 차지하는 統一教育 내지 反共教育은 政治的 環境의 變化에 민감하게 變하지 않을 수 없다.¹⁾

70年代 東西和解의 軍事的 또는 政治的 데탕트는 80年代의 軍事·政治·經濟의 和解 氣流로 이어져 보다 安定되고 지속성을 띠 것으로 觀측하고 있다.²⁾ 한반도를 둘러싼 4強의 立場은 他們 內部的 變化 要求와 實用主義的 相互依存性의 中대로 그 어느 때 보다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어, 한반도 問題로 인한 他們 相互間의 雙務關係를 해치는 상태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韓國의 經濟 成長과 發展은 88올림픽을 계기로 中·蘇를 비롯한 共產圈 國家들과의 關係 改善과 經濟的 協力體制의 구축등 매우 고무적으로 展開되고 있다. 이러한 國際的 變化의 추세는 南北韓間의 對話를 촉진하고 統一에 로 진일보할 수 있는 흐름으로 바꾸기 위한 主體的 努力을 더욱 絶실히 要求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한편 國內的으로는 70年代에 있어 制限된 의미에서의 ‘한반도 問題의 한반도화’라는 現象이 南北韓間의 對話 및 交流를 촉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의 反共政策은 ‘盲目的인 反共’에서 ‘知共的인 反共’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變化는 몇 단계의 政策的 조치들로 現實化 되었다.³⁾

그러나 이와같은 새로운 反共政策은 70年代 하반기에 접어들어 난관에 봉착하게

1) 朴容憲, “初等學校 教科書에 反映된 統一·反共教育의 變遷過程分析研究,” (서울: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1977), p. 3.

2) 鄭鎔碩, “新 德탕트와 새 統一課題,” 「自由公論」, 1988年 3月號, p. 46.

3) 姜光식, “南北對話 時代의 反共教育,” 「도덕과 教育의 問題와 전망」(서울: 教育개발원, 1986), p. 129.

되었다. 요컨대, '知共'에의 수요가 '反共'이라는 現實的 必要性을 웃돌게 된 사회적 상황이 제기된 것을 뜻하며, 그것은 주로 6·25 미경험 세대의 社會的 대두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知共의 欲求 성향의 결과로 얻어진 단편적 共產主義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社會 현실을 파악하려는 이른바 '좌경적' 의식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다.⁴⁾ 물론 이러한 勢力의 대두는 지난 20여년간에 걸쳐 추진하여온 近代化 作業의 結果에 수반된 社會·經濟的 상황과 그리고 維新體制 출범 이후에 야기된 일련의 政治的 狀況, 또한 제5공화국의 대두등의 政治的 事態에 연류되어 더욱 고무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的 분위기는 넓게는 初·中·高等學校에서 실시되는 統一教育·反共教育 전반에 대하여, 좁게는 道德科·國民倫理科 및 社會科 教科書에 실려있는 反共教育 內容 자체에 대해서 그 效果와 관련지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가르치는 反共教育 內容은 정말 學生·아동들의 反共意識 形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學生들의 學校 教室에서 배운 內容, 學校 教師가 가르쳐준 反共 知識은 일상 생활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얻어지는 時事 情報를 해석하는데 믿을 만한 基準이 되고 있는 것일까? 最近에 들어서는 學校에서의 反共教育이 統一의 저변 확대를 위한 民族 同質性 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作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마저 제기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展開되는 現實과 앞으로 다가올 예상되는 事態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제 6·25 이후 오늘날 까지 추진해온 反共教育 그리고 消極性을 보여온 統一教育의 모든 假定과 原則에 대해 깊은 反省과 批判을 加해야할 것 같다.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져온 統一·反共教育의 變遷過程에 대한 事實적 分析과 比較를 통해 反共教育·統一教育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國家가 公式的으로 표방해온 統一·反共政策이 歷史的으로 展開되어온 사

4) 강광식, 前揭論文, p. 131.

실들을 概略的으로 살피고, 이것이 教育에 反映되어온 與否와 程度를 分析하여 國家의 統一·反共政策이 教育政策에 어떻게 反映되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研究目的 I)

둘째 統一·反共教育 政策으로서의 教育指針(또는 方針) 및 教育課程의 變遷과 教育內容으로서의 教科書 內容의 變遷過程을 分析하여, 相互 比較함으로써 統一·反共教育 政策이 실제 教育 內容에 反映되어온 過程을 알아본다. (研究目的 II)

셋째, 統一·反共政策이 教育政策에, 統一·反共教育政策이 教科書 內容에 反映되어져온 結果 分析을 통하여 統一·反共教育政策 및 教科書 內容 構成에 관한 示唆點을 提供하려 한다. (研究目的 III)

3. 研究 方法 및 範圍

本 研究에서는 研究의 目的에 제시한 項目들을 分析·檢討하기 위하여 文獻 分析의 方法과 教科書 內容 分析의 方法이 사용되었다.

文獻의 分析은 統一·反共政策의 變遷과 統一·反共教育을 위한 教育課程의 變遷過程을 分析하기 위한 것이며, 教科書의 內容 分析은 統一·反共教育의 內容 變遷過程을 分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영역의 分析 研究를 위해 사용된 方法은 다음과 같다.

가. 文獻 分析

文獻 分析에 있어서는 統一·反共政策의 變遷過程과 教育政策의 變遷에 따른 教育課程의 變遷을 살피기 위하여 해방후 부터 오늘날 까지를 時期的으로 의미가 있는 變遷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各 時期 區分別 變遷의 主要 特徵을 중심으로 文獻을 蒐集 分析하였다. 時期의 구분은 朴容憲(1979)과 梁榮植(1987)의 區分을 引用하여 教育課程 變遷 時期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第 1 期; 1946~6·25動亂-戰前의 統一政策-교수요목의 시기('46~'54)

第 2 期; 6·25動亂後~1961-戰後 50年代의 統一政策-제1차 教育과정의 시기('55~'62)

第 3 期:1962~1970-60年代의 統一政策-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63~'71)

第 4 期:1971~1980-70年代의 統一政策-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73~'81)

第 5 期:1981~1988-80年代의 統一政策-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82~)

分析에 必要한 文獻 中 남북관계 資料와 外交 年表 資料들은 주로 2次 資料로 사용하고 있으며, 教育課程 變遷 分析을 위한 文教部 發刊의 「教育課程」과 教育課程 變遷에 關한 著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分析하였다.

• 教育課程 變遷 分析을 위한 參考 文獻

- 「국민학교 教育課程」, 1955, 文教部.
- 「국민학교 教師指針」, 1956, 港都出版社.
- 「국민학교 教育課程」, 1963, 文教部.
- 「국민학교 教育課程」, 1963, 金鳳守 外 3人 .
- 「한국 新 教育史」, 1964, 오천석.
- 「국민학교 教育課程」, 1969, 배영사.
- 「국민학교 教育課程」, 1973, 고금문화사.
- 「국민학교 教育課程 해설」, 1973, 교육도서.
- 「교육과정 연혁 조사」, 1974, 함종규.
- 「국민학교 教育課程」, 1983, 文教部.
- 「새 교육과정의 理論的 基底」, 1983, 배영사.
- 「국민학교 教育課程」, 1987, 文教部.
- 「국민학교 教育課程 해설」, 1988, 교육과학사.

나. 教科書 內容 分析

(1) 分析 對象 教科書

各級 學校의 全學年 教科書가 처음으로 發刊된 1955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국민학교 「반공 도덕」, 「도덕」 등의 教科書 모두를 分析의 對象으로 삼고 있으나 수집할 수 없는 教科書가 많아서 1966年 以前의 教科書에 對한 分析은 先行 研究(朴容憲)를 參考하여 인용 分析하였으며 本 研究 過程에서 主로 分析된 教科書는 1972年 이후의 教科書에 對하여 직접 分析하였다. 分析 對象이 된 教科書의 總數는 46卷이

며 2次 資料에 의해 分析된 것이 26卷, 직접 分析된 것이 20卷이다. 다만 時期 區分 1期(1946~1950)에 해당하는 時的 教科書 내지 教材등 分析에 參考가 될 만한 資料를 구할 수 없어 分析에서 제외 되었다. 이들 教科書에 對한 소개는 제Ⅳ章 <表 7>에서 밝히고 있다.

(2) 教科書 分析 方法

本 研究에서는 研究의 目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教科書 內容 自體의 展開·變遷된 過程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므로, 教科書 內容에 나타난 統一·反共 關聯 單元들이 어떻게 취급되어 졌나를 <表 1>과 같은 分析 카드에 의해 分析하였다. 이 분석 카드에 의해 작성된 內容을 中心으로 教科書에 나타난 教育 內容을 정리하고, 教育目標와 비교·분석하는 方法으로 進行되었다.

分析 카드의 內容과 사용 方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教科書名, 學年, 學期, 出版년도 등이 기입되고 單元명을 題材란에 기입하였다. 그리고 單元에 따른 소주제 별로 1차시가 전개되는 경우에는 소주제를 記入하여 소주제를 單位로 分析 카드가 作成되었다. 單元的 主안점에는 教師用 지침서상에 나타난 指導 目標가 記入되어 졌으며 教科書 內容의 展開를 要約하여 整理하고 그것들이 의도하는 바를 行動 特性別 認知·情意·行動 領域으로 區分하여 表記하고 있다. 이러한 內容의 전개와 單元的 主안점 그리고 意圖하고 있는 行動 特性에서 反映되어 지고 있는 바를 綜合하여 內容要素로 整理되고 있다. 內容 요소의 정리는 主題와 副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 單元에서 主안점에 해당되는 것은 「主」로, 그 單元에서 主안점에 부수적으로 수반된 教育내용은 「副」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 공산 치하 생활의 비참상”을 알게하는 主안점이 전개되면서 “때문에 북한 동포를 빨리 구출하려면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內容이 展開되면, 前者는 「主」에 後者는 「副」에서 계산되고 있다.⁵⁾ 영역별에서는 內容에 포함된 지도 요소가 반공 또는 통일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表記하고 있다. 비교란에는 表現上의 特記할 만한 점, 새로운 內容의 출현등이 부기되고 있다.

5) 金恒元, “政治社會化 動因으로서의 高等學校 教科書의 內容分析,”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9), p. 34. 에서 「分析 單位」에 관한 「記錄單位」, 「脈絡單位」의 區分에서 引用한 것임.

敎科書 內容 分析 카드

<表 1>

교과서명	학년학기	년도			
계재(단위)	소계재				
주안점					
주요내용의 전개	부성별	인 지	정 의	행 동	영역별
					공통요성
					특일의 품의 과 정
내용요소	주	부			
비고 (표현, 기타특징)					

II. 統一·反共政策의 變遷過程

分斷 직후에는 統一이란 곧 “分斷以前狀態로의 回歸”를 의미했었으며, 統一의 當爲는 分斷 고통의 해소라는 단순한 論理에서 論議되었다.⁶⁾ 적어도 統一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歷史的 使命’으로 굳어져 있으면서 南北韓 關係는 法的·政治的 關係와 의식 속에서 ‘하나의 社會’이나 現實적으로는 두 개의 獨立된 國家社會로 존재하는 셈이다.⁷⁾ 그래서 建國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歷史的 使命으로서 志向해 왔던 統一을 위한 統一·反共의 主要 政策들을 몇 時期로 나누어 그 特徵을 살펴보고 이와 연관하여 統一·反共教育政策 및 教育內容에 反映된 關係를 分析하는 틀로 삼고자 한다.

統一政策이란, 本質적으로 綜合的 性格을 갖는 것으로서 韓國의 總體的인 統一 推進 力量이 反映되는 것임은 물론 역대 政府의 諸般特性, 民族的 正統性의 程度, 北韓 統一政策과의 相關性 및 對南戰略·戰術·樣態, 그리고 國際的 政治環境등이 連繫적으로 작용하여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⁸⁾ 여러차례 바뀌어져 온 統一政策을 어떤 目的과 觀點에 따라 考察할 것이냐에 따라 多角度的 分析이 可能할 것이냐 建國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에 提示된 公式的인 主要 統一政策 및 方案을 시기별 주요 정책의 變化에 맞추어 概略적으로 살필 것이다.

6) 李相禹, “하나의 韓國을 向한 우리의 길,” 「統一韓國의 摸索」(서울: 博英社, 1987), p. 7.

7) 上揭書, p. 4.

法的, 政治적으로는 서로 相對政府를 “叛徒集團”으로 규정하고 독립된 政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意識속에는 하나의 民族社會로 認識하고 있다. “認識과 現實”의 乖離가 극심한 상태로 지속되어 온 것이 現實이다.

8) 梁榮植, “韓國統一政策의 變遷에 관한 研究”(博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87), p. 201.

1. 第1期(1946~6·25): 戰前的 統一政策

第1共和國 政府의 統一政策은 야누스의 얼굴처럼 兩面性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對外的으로는 UN監視下의 總選舉 統一 方案이라는 平和的 統一政策을 표방하였고, 對內的으로는 武力 北進統一論을 공공연히 표방했기 때문이다.⁹⁾

李承晩은 1949年 2月 18日 韓國 統一問題에 관한 政府의 입장을 밝히는 聲明書에서 “國土 統一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大韓民國 政府의 存立 目的下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北韓 傀儡政權」과의 협상은 共產 政權의 默示的 承認을 뜻하는 것이므로 如何한 侮辱的인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¹⁰⁾ 고 강조하여 對話와 協商 手段에 의한 平和的 해결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격하였다.

또한 政府는 제4차 UN總會에 보낸 메시지에서 “韓國의 統一은 오직 北韓에게 自由選舉를 실시하도록 한 UN決意와 履行義務를 강요할 수 있는 UN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¹¹⁾ 고 주장하여 한국의 統一政策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6·25動亂이 일어나자 李承晩은 1950年 7월 19日 韓國政府의 公式 立場을 트루만(Harry S. Truman)에게 전달하면서 “UN軍의 작전목표가 戰前 原狀의 回復, 즉 38線의 進격 停止에 그쳐서는 안되며 北進統一을 完수해야 한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¹²⁾

이렇게 볼 때 해방후 부터 6·25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의 政府의 公式的 統一·反共政策은 통일을 未收復地區의 收復 또는 主權의 擴大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였고 그 收復과 확대 과정에서 武力 使用의 正當性 까지 인정하였던 시기였다.

9) 梁榮植, 前揭論文, p. 7.

10) 東亞日報, 1949年 2月 20日字.

11) 外務部(編), 「韓國外交 30年: 1948~1978」(서울: 新興印刷, 1979). p. 63.

12) 梁榮植, 前揭論文, p. 10.

2. 第2期(6·25後~1962):戰後 50年代의 統一政策

戰後 50年代의 統一·反共政策은 1954年 4月 26日 부터 이루어진 제네바 政治會談을 전후하여 發表된 내용들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會談에 대비한 1953年 11月 23日 李承晩 大統領의 特別聲明에서 “북한 만이 단독선거로 國會의 殘餘議席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北韓 住民이 원한다면 全國 總選舉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會談에 참석한 우리 나라의 卞榮泰 外務長官이 제안한 14個 條項의 韓國측 統一方案에서 골자가 되는 것은 “統一·獨立·民主의 韓國을 확립할 목적으로 이에 관한 종전의 UN決意에 의거하여 UN監視下에 人口比例에 의한 自由總選舉(genuinely free Korean elctions) 실시”였으며, 이 會談에서 合意를 이룬 것이기도 하였다.¹³⁾

그러면서도 李承晩 大統領은 정권 말기에 까지 국민들에게 自力에 의한 武力北進 統一을 豪言하였다. 그러나 4·19 革命은 李政權의 統治의 象徵操作(symbol manipulation)의 性格이 짙은 武力北進統一論의 종말을 宣言하고 自主的 平和統一論의 滿開를 알리는 出發信號彈이 되었다.¹⁴⁾ 民主黨 政權 역시 1960年 8月 24日 鄭一亨 外務長官의 「外交施策 7個項」 發表를 통해 UN監視下 自由總選에 의한 統一方案을 내었으며, 60年 11月 2日 5代 國會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統一方案을 決議하였다.

이렇듯 이 시기는 統一·獨立·民主韓國의 건설을 위해 남북한 人口比例에 의한 총선 실시가 통일방안으로 내세워 졌으며, 反共·武力統一政策이 李大統領에 의해 상징적으로 내세워 졌던 시기이다.

3. 第3期(1962~1970): 60年代의 統一政策

1961年의 5·16 쿠데타를 계기로 수립된 제3공화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제2공화국의 國內 政治的 混亂에 따른 統一에 관한 國論分裂을 克服하고 ‘聯邦制’ 宣傳 등 북

13) 梁榮植, 前揭論文, pp. 13~16.

14) 上揭論文, p. 98.

한의 對南 偽裝平和攻勢에 對應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제3공화국 정부도 “UN監視下의 人口比例에 따른 南北韓 總選舉”라는 제2공화국의 統一政策을 이어받았으며, ‘先建設 後統一’ 政策에 力點을 두고 추진되었다.¹⁵⁾ 즉 이 때의 統一方案은 우선 武力에 의한 統一을 부정하고 平和的 統一을 指向하며 經濟建設과 民主力量 培養을 통한 民主統一의 成就 및 UN을 통한 人口比例에 의한 自由總選舉의 實施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결국 60年代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의 기저는 북한을 제압할 만한 힘의 優位를 확보한 후 한국의 制度를 북한 사회에 擴大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¹⁶⁾

제3공화국 統一政策의 주요한 특징 중의 또 한 가지 사항은 統一政策이 철저한 反共의 토대위에서 政府 主導의 體系의이고 積極的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이다. 먼저 軍事革命政府는 1961年 6月 10日 ‘中央情報部 設置에 관한 法律’을 公布하여 혁신운동가 및 感傷的·容共的 統一論者들의 統一論議는 물론 이들의 活動을 일체 금지시켰으며, 1964年 11月 제16대 국회에 제출된 ‘國土統一方案에 대한 決議案’에는 “統一된 한국의 民主主義와 모든 한국 국민의 자유와 民權의 保全을 위협하는 統一方案을 일체 배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⁷⁾

이처럼 제3공화국하 60年代에 있어서는 철저한 반공정책을 基盤으로 통일논의 자체보다는 통일을 위한 힘을 키우는 時期였다고 할 수 있다.

4. 第4期(1971~1980): 70年代의 統一政策

1960年代의 철저한 反共을 基盤으로 한 統一政策은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점차 變化를 보이게 된다. 이는 國際的인 緊張이 점차 緩和되고 平和共存的 분위기가 나

15) 上揭論文, p. 124.

16) 韓點洙, “韓國統一政策의 變遷과 展望,” 「第3回 在美學者 招請 統一問題學術會議·論文集」(서울: 國土統一院, 1987), p. 287.

17) 梁榮植, 前揭論文, p. 129.

타나게 됨에 따른 영향과, 對內的으로는 1962年과 1967年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經濟開發 5年計劃이 성공하여 1971年 부터는 한국이 북한을 經濟力面에서 앞지르게 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19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이 행한 8·15 慶祝辭에서 처음으로 남북한과의 接觸可能性을 시사하면서, 종전의 통일문제에 대한 消極的 態度에서 積極的 態度로 전환했음을 의미하였다.¹⁹⁾ 1971年 8月, 한국적십자 측의 재의에 의해 시작된 南北韓赤十字會談은 남북한 관계의 突破口를 마련해 주었고, 1972年 7月 4日에는 역사적인 「7·4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었다.

1973年 6月 23日에 천명된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은 이 時期를 代表하는 政策의 表現이었다. 그 主要內容은²⁰⁾ ①平和統一 努力 繼續, ②相互 不干涉, 不可侵, ③南北對話 繼續 推進, ④북한의 국제기구 參加 不反對, ⑤南北韓 UN 동시 가입 不反對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1974年 1月 18日 朴大統領이 年頭記者會見에서 밝힌 「南北韓 相互 不可侵協定 提議」에서 보다 명백하게 나타났으며, 1974年 8月 15日의 「平和統一 3大 基本 原則」에서도 ①平和定着, ②相互交流協力, ③南北韓 土着人口 比例에 의한 自由總選舉라하여 平和 定着에 의한 統一方案이 再闡明되었다.

이렇듯, 70年代는 60年代의 ‘對話없는 對決時代’를 점차 清算하고, ‘對話있는 對決時代’로 접어들었으며 ‘先平和 後統一’ 政策을 추구하였던 것이 이 時代의 統一政策이라 하겠다.²¹⁾



5. 第5期(1981~1988): 80年代의 統一政策

제5공화국 정부는 統一問題에 대해 歷代 어느 政府보다는 積極的인 姿勢를 보였고 많은 對北提議를 하였다. 제5공화국 정부는 出帆과 함께 1981年 1月 ‘南北韓 當局

18) 金世源, “南北韓 經濟交流의 推進方向,” 「統一論叢」, 제2권 2호(1982. 12), pp. 15~16.

19) 梁榮植, 前掲論文, p. 130.

20) 朴容憲, 前掲論文, p. 17.

21) 梁榮植, 前掲論文, p. 139, 206.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提議'를 統一 論議의 출발로 삼아, 同年 6月 5日에는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84年 8月에는 '南北韓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 등 수 차례에 걸친 提議와 統一政策 表現이 있었으나, 제5공화국 政府의 統一政策을 要約한 것이 82年 1月 22日 全大統領이 國政演說에서 발표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라 할 수 있다.²²⁾

이 統一方案의 體系와 構造는 크게 民族和合의 方法과 民主統一의 方法이라는 두 가지 部門으로 나눌 수 있다.²³⁾ 民族和合의 方法으로는 南北韓이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하여 相互關係를 정상화하고, 統一沮害要因을 해소하며,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하여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戰爭防止措置를 강구하자는 것이며, 民族統一의 方法으로는 남북간에 住民代表로 「民族統一協議會」를 구성하여 統一憲法을 起草하고, 그 통일헌법을 6천만 민족의 자유로운 國民投票를 통하여 確정한 다음, 確정된 통일헌법에 따라 民主的 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國會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統一政府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現在까지 한국정부가 제시한 統一方案을 體系化한 現實的, 包容的, 實踐的, 積極的 그리고 綜合的 統一方案이라 할 수 있다.²⁴⁾

以上에서 살펴본 주요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의 變遷過程을 단계별로 그 특징적 要旨를 간추리면 <表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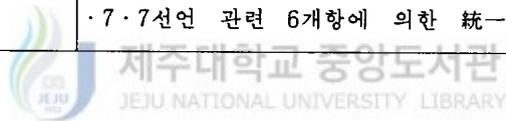
22) 梁榮植, 前揭論文, p. 208.

23) 李慶淑, "韓國의 統一方案," 「韓國과 國際政治」 제3권 1호(1987년 봄), p. 83.

24) 梁榮植, 前揭論文, p. 209.

〈表 2〉 時期別 統一·反共政策의 主要 內容

時 期 區 分	主 要 政 策 內 容
· 第1期:1946~6.25 (反共·武力統一政策)	· 反共·武力統一政策 · 北韓 地域만의 代表 選出을 위한 總選 實施
· 第2期:6.25後~1961 (UN監視下 南北總選)	· 統一·獨立·民主韓國 再建 · UN監視下 南北韓 人口比例에 의한 總選
· 第3期:1962~1970 (平和的 統一政策)	·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 · 國力培養을 통한 平和的 統一 基盤 造成 - '先建設 後統一' -
· 第4期:1971~1980 (段階的 平和統一 政策)	· 南北 相互不可侵 協定 提議 · 平和 定着, 交流, 總選등 平和統一 3大 基本 政 策에 의한 統一 - '先平和 後統一' -
· 第5期:1981~1988 (對話·交流·開放 확대)	·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 · 對話·交流·開放 확대에 의한 平和的 統一 · 7·7선언 관련 6개항에 의한 統一方案



Ⅲ. 統一·反共教育 政策의 變遷過程

本章에서는 統一·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우리 나라 教育課程의 變遷史를 概觀하여 살펴보고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5차에 걸쳐 改編되어 온 教育課程 및 教育指針에 反映된 統一·反共教育의 目標을 分析함으로써 統一·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을 살필 것이다.²⁵⁾ 또한 제 2章에서 分析한 統一政策의 變遷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1. 教育課程의 變遷史

우리 나라의 國民學校 教育課程은 1945年 美 軍政下에서 制定된 ‘교수요목’으로 출발하였다.²⁶⁾ 1948年 大韓民國이 수립되어 우리 나라의 教育課程 制定을 서두르게 되었으나, 6·25 사변이 일어나 그 實現을 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1954年 4月 20日 문교부령 제35호로 國民학교 教科課程 時間配基準令을 公布하고, 이어 1955年 8月 1日에는 문교부령 제44호로 國民학교 教科課程을 처음으로 制定 公布하였다.²⁷⁾

이 教科課程은 해방 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의욕적인 것이기는 하였으나 6·25 사변과 휴전 직후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25) 現在 우리나라 學校 教育에서의 教育課程은 國家水準의 計劃된 教育內容이며, 이는 文書化된 ‘教育課程基準’(정책)이라 할 수 있다.

· 教育大學教職科 教材編纂委員會, 「教育基礎」(서울: 教育出版社, 1973), p. 73.

‘目的達成을 위해서 成就되는 작은 行動特性들을 教育目標라 한다. 그러므로 教育目標는 여러 深層으로 構成되어 있다. 즉 學習 및 教授目標는 授業目標를 達成하고, 授業目標는 學年目標를 達成하고, 學年目標는 學校目標를 達成하고 學校目標는 教育方針이나 目的, 理念을 成就하는 것이다.’

26) 문교부, 「도덕」; 國民학교 교사용 지도서 (서울: 문교부, 1982), p. 9.

27) 咸宗圭, 「教育課程沿革調查」(서울: 淑明女子大學校, 1974), pp. 231~243.

補完하기 위하여 1963년에 各級學校의 教育課程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教育課程은 종래의 教科課程이란 명칭을 教育課程으로 바꾸었고, 教育課程 內容面에서 自主性·生産性·有用性을 강조하였다. 教育課程 組織面에서는 地域性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教育課程의 構造는 '教科 活動', '反共 道德 生活', '特別 活動'의 세 領域으로 構成하였다.²⁸⁾

그 후, 1971年 부터 다시 教育課程의 改編에 착수하여 改編 10年 만인 1973年에 國民教育憲章의 理念을 바탕으로 하는 제3차 教育課程을 文敎部令 제310號로 公布하였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그 때까지 生活 領域으로만 있던 反共 道德을 教科化하여 教科 領域으로 넣어 생활 영역은 세 개에서 둘로 줄어들고, 教科는 8教科에서 9教科로 늘어나게 되었다.³⁰⁾

1978年에 들어서면서 다시 教育課程의 改正 作業과 研究가 진행되어 1981年 文敎部 고시 제422號로 제4차 教育課程이 公布되고 1982年 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제4차 教育課程은 人間中心 教育課程으로 編制와 時間 配當은 1973年에 改정한 제3차 教育課程과 變함이 없다. 단지 저학년의 경우 아동들의 生活 領域을 확대하여 종래의 도덕, 국어, 사회를 「바른 생활」이라는 教科 領域으로 統合하여 運營하게 된 점이 다르다.³¹⁾

제4차 教育課程 때까지는 대체로 10年을 주기로 改編이 이루어져 오다가 4차 改編後 6年이 지난 1987年에 이르면서 그간에 이루어진 時代的 狀況의 격변과 社會的 要求에 따라 教育課程의 質의 재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文敎部는 연구 과정을 거쳐 1987年 6月 30日 文敎部 고시 제87-9號로 제5차 教育課程을 公布하였다. 새 教育課程은 1, 2, 3學年은 1989年 부터 4, 5, 6學年은 1990年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教育課程은 첫째, 教育課程의 質을 管理하기 위하여, 둘째, 時代的 狀況의 變化에 대처하기 위한 必要에 의하여 항상 改正의 必要性이 發生

28) 文敎部, 「국민학교 教育課程」(서울: 文敎部, 1963), pp. 1~23.

29) 「국민학교 敎育과정」(서울: 培英社, 1969), pp. 19~23.

30) 「국민학교 敎育과정」(서울: 高금문화사, 1973), pp. 5~14.

31) 문교부, 「도덕」: 국민학교 敎사용 지도서(서울: 문교부, 1982), p. 9.

한다.³²⁾

2. 統一·反共教育 政策의 變遷過程

한 나라의 教育課程은 그 나라에서 기르고자 하는 人間像을 具體化하고 그 具現을 設計한 것이다. 즉 教育의 內容과 方法등이 反映된 教育의 청사진이다.³³⁾ 따라서 統一·反共教育 政策의 變遷過程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차례 改編되어져온 教育課程 및 教育指針에 反映된 統一·反共教育의 目標를 分析함으로써 살필 수 있을 것이다.

變遷의 時期 區分은 國民학교 教育課程의 變遷過程에 따라 살필 것이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의 重要的 政治的·政策的 變動期와 1~2년이 차이를 두고 거의 일치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各 時期別로 統一·反共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을 教育指針 및 方針, 教育課程上에 나타난 目標와 關聯內容을 中心으로 살필 것이다.

가. 第1期(1946~1950); 民主市民教育 強調期

1945年 해방을 맞은 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再建될 우리 國家의 教育을 設計하기 위하여 組織된 '教育審委會'에서는 우리 나라 教育理念을 "弘益人間的 理念에 基하여 人格이 完全하고 愛國精神이 투철한 民主 國家의 公民을 養成함을 教育의 根本 理念으로 한다"고 하여 大韓民國의 理念指標를 밝혔다.³⁴⁾ 그리고 위의 理念 관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5個項의 教育方針을 樹立하였다.

① 民族的 獨立 自存의 氣風과 國際 友好 協助精神이 具全한 國民의 品性を 陶冶한다.

② 實踐窮行과 근로역작의 精神을 強調하고 忠實한 責任感과 상호애조의 公德心

32) 「國民학교 敎育과정 해설」(서울: 敎育과학사, 1988), pp. 34~36.

33) 「敎育學大辭典」(서울: 敎育科學社, 1988), p. 155.

34) 朴容憲, 前揭論文, p. 20.

을 발휘한다.

③ 固有文化를 醇化昂揚하고 科學技術의 獨創的 創意로서 人類文化에 公헌함을 기한다.

④ 國民 體위를 向上하여 健인 불발의 기백을 양성케 한다.

⑤ 崇高한 예술의 감상, 創造性을 고조하여 순후 원만한 人格을 養成한다.

1948年 大韓民國의 獨立國임을 世界萬邦에 宣布하게 되자 同年 7月 17日이 公布한 憲法 제17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으며, 적어도 初等教育은 義務의 이며 無償으로 한다”고 한 憲法 精神에 따라 建國理念에 符合한 教育基本法의 制定이 시급하게 되어 그 制定에 착수하였다. 10人의 起草委員들이 起草한 것을 審議를 거쳐 成案된 것이 同年 11月 30日 國會를 통과, 12月 31日 法律 第86號로 公布 되었다. 教育法 第1章 總則 第1條에서 “教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主國家 發展에 奉仕하며, 人類共榮의 理想 實現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우리 나라의 教育의 理念과 目的을 規定하였다.³⁵⁾ 그리고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7個項의 教育方針을 제2條에 제시하고 있다.

① 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維持에 必要한 知識과 習性을 기르며 아울러 堅忍不拔의 氣魄을 가지게 한다.

② 愛國愛族의 精神을 길러 國家 自主 獨立을 維持 發展하게 하고 나아가 人類 平和 建設에 寄與하게 한다.

③ 民族의 固有文化를 繼承 昂揚하며 世界 文化의 創造 發達에 貢獻하게 한다.

④ 眞理探究의 精神과 科學的 思考力을 培養하여 創意的 活動과 合理的인 生活을 하게 한다.

⑤ 自由를 사랑하고 責任을 尊重하며 信義와 協同과 敬愛의 精神으로 調和있는 社會 生活을 하게 한다.

⑥ 審美的 情緒를 涵養하여 崇高한 藝術을 감상 創造하고 自然의 美를 즐기며 여 유의 時間을 有効히 使用하여 和諧明朗한 生活을 하게 한다.

35) 咸宗圭, 前掲書, p. 201.

⑦ 근검 노작하고 務實力行하며 有能한 生産者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진실한 經濟生活를 하게 한다.

以上 建國에서 6·25 動亂 때까지의 教育目標와 教育方針을 살펴 보았으나 統一·反共教育에 關하여서는 전혀 言及이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民主市民教育의 強調로 反共教育이 間接的으로 實施되었던 時期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당시의 社會 生活科의 教育內容은 美國教育使節團의 영향을 받아 構成되었던 時代이기도 하다.

나. 第2期(1951~1961); 反共教育 確立期

自主 獨立國으로서의 體制를 갖추어 나아가게 될 무렵인 1950年 北韓은 南侵의 砲門을 열어 同族相殘의 쓰라린 戰爭의 와중에 온 民族이 휩쓸리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1951年 2月 21日 당시의 안호상 文敎部 長官은 '戰時下 教育 特別 措置要綱'을 制定 發表하여 戰時教育의 重點은 "滅共·必勝의 信念을 培養하고 戰局과 國際 集團 安全保障의 認識을 明確히하여 戰時 生活를 指導하는데 둔다"고 淸명 滅共統一教育을 主張하였다.³⁶⁾

1952年 백락준 長官은 이 戰時下의 教育方針을 확대하여 教育目標를 ① 自活人(個人), ② 自由人(國民), ③ 平和人(國際人)의 養成에 두고 教育 領域을 4個로 區分하여 教育方針을 提示하였다. 教育目標에는 統一·反共教育에 關한 言及이 없으나 教育方針으로서 提示한 4個 領域-① 知識教育, ② 技術教育, ③ 道德教育, ④ 國際教育-中에서 ④ 國際教育의 領域에 滅共教育이라는 명칭으로 強調되고 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³⁷⁾

○ 國際教育 "……共產主義는 우리 人類의 적이라는 信念하에 共產黨을 쳐부신다는 強한 精神을 가지고 이 나라의 戰爭이 正義를 위한 戰爭이며, 이 世界의 道義的 戰爭을 승리로 종막을 거두게 한다는 認識을 철저히 고취시키는 國際知識을 教育하는 동시에 大學 以下 中學에서는 軍事訓練을 실시한다."

그리고 1952年 10月 제3代 文敎部 長官에 취임한 金法麟은 '戰時文教', '建國文教'

36) 成宗圭, 前揭書, pp. 210~214.

37) 上揭書, p. 215.

및 '獨立文教'라는 3大 教育方針을 提示하였다. 이 중 戰時文敎에 대하여 그 자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⁸⁾

戰時文敎란, 敎育 全體를 통하여 反共敎育과 國防力을 強化하려는 것이며 滅共 求國精神은 涵養하고 戰時體制強化와 國防技術 研마에 주력하여 戰時 生活敎育에 精力을 기하려 함이다.”

이어 1954年 李宜根 文敎部 長官은 防日·反共을 敎育行政의 표어로 내세워 繼續的인 反共敎育을 強調하였다. 그 해 4月 20日에 制定 公布된 '各級學校 時間配當 基準令'(敎育課程 時間配當 基準令 第2章 國民學校 第10條)³⁹⁾에 의하면 道義敎育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道義敎育은 全敎科 및 其他 敎育活動 全般에 亘하여 行하되 各學年 總授業 時間數의 範圍內에서 35時間 以上을 이에 充當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즉 全 敎科 指導와 敎科外 活動 全般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特定한 敎科에서만 하거나 새로이 道義敎育을 新設하려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道義敎育은 理論的인 指導가 아니라 實踐的 活動 敎育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勝共·統一敎育은 道義敎育의 一部로 다루어지기 始作하였다.

1955年 8月 1日에는 文敎部令 제44號로 '國民學校 敎育課程'을 公布하여 國民學校 時間配當 基準令과 더불어 國民學校의 敎育內容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⁴⁰⁾ 여기에서는 道義敎育에 대해 時間配當을 하지 않았으나 道義 敎科書가 처음으로 발간되었고 이 道義 敎科書에 勝共統一 問題가 하나의 領域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⁴¹⁾ 社會生活科가 새로이 나와서 종래의 修身·公民·地理·歷史를 망라한 정식과목으로 다루어 지게 되면서 이층에 統一問題가 조금 言及된 것은 特記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미미한 정도였다.

38) 朴容憲, 前揭論文, p. 23.

39) 成宗圭, 前揭書, pp. 231~232.

이 基準令은 大韓民國이 獨立된 후 처음으로 制定된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 나라 學校敎育課程의 틀이 확실히 잡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0) 上揭書, p. 232.

41) 朴容憲, 前揭論文, p. 24.

1955년에 制定된 道義教育의 目標와, 1959년에 改編된 道德教科의 目標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²⁾

◎ 1955년에 制定된 道義教育의 目標

①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克服하여 가며 國土統一과 民主國家建設에 전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民族의 理想은 우리 나라 헌법이나 教育법의 一관된 精神이기도 하며 우리 나라 教育의 목표도 여기에 있다.

② 국민학교 道義教育은 이와 같은 民族의 理想 實現에 이바지할 수 있는 人격의 터전을 복돋아 주는데 그 임무가 있다.

고하여 道義教育에 領域을 ①個人生活, ②對人生活, ③公民生活, ④經濟生活, ⑤反共·防日의 5영역으로 區分하고 있다.

◎ 1959年 道德教科의 目標 中 反共教育의 目標

① 反共思想을 굳게 갖는다.

② 品位있는 世界市民으로서 自由世界와 親和한다

고 밝히고 그 內容目標에서

① 共產主義의 不當성을 깨닫고 이를 분쇄하는 결의를 갖는다.

② 民主發展에 대한 굳은 信念을 갖는다.

③ 自由世界와 親和하여 世界 平和에 공헌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2期에 있어서는 戰時에 있어 滅共求國 精神의 強調가 55年 制定된 道義教育, 59년에 改編된 道德教材 속에 反共教育의 確立으로 나타났으며, 滅共의 精神이 教育政策 속에 넘치던 時期였다. 한편 統一問題에 대한 언급은 미비한 편이나 55年 道義 教科書에 勝共統一의 문제를 하나의 領域으로 배치시켰던 정도의 정책 배려가 있었다.

다. 第3期(1962~1970); 反共教育 強調期

1960年 3·15 不正選舉에서 4·19로 이어지는 混亂과 激動의 時期에는 과도기의

42) 朴容憲, 前揭論文, pp. 24~27.

民主黨 政權에 의해 口號와 計劃·審議와 檢討만이 單발하면서 진정한 民主的 教育의 문제들이 부각되어 졌다.

이러한 기류에 따라 統一의 問題가 거론되기 시작하여 反共 統一教育의 轉換期를 맞이하는 듯 했으나 過去의 反共教育을 確認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⁴³⁾

1961年 軍事革命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反共·統一教育은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하고……”로 시작되는 革命 公約에도 明白히 그 轉換의 意味가 강조되었다. 이 時期에 있어 反共·統一教育의 強化過程을 1962年 2月 道德教科를 모든 教科에 우선하여 改編한 데서도 알 수 있다.⁴⁴⁾

1962年度 道德教科中 反共教育 目標

○ 취지

反共은 단순한 우리 人間生活의 어느 特定한 方面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反공에 관한 教育의 徹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人間生活의 모든 分野에서 共產主義는 어떠한 方法으로 배반하고 있으며 國民의 自由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의 실지를 理解시켜야 함은 물론 나아가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을 공고히 함으로써 民主수호, 反共·統一의 精神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 目標

① 共產主義는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政治制度를 쓰고 있으며 그것은 民主主義 原理를 어떻게 배반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② 共產主義 밑에서 國民들은 어떠한 生活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民主主義 生活에 비해서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③ 共產主義는 人間의 基本權인 自由와 創意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한다.

④ 共產主義는 우리 나라를 어떻게 침범하였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罪惡을 범하였는가를 알게 한다.

43) 朴容憲, 前揭論文, p. 27.

44) 上揭論文, pp. 27~29.

⑤ 共產主義 侵略을 막기 위하여 우리 국군과 유엔軍은 어떻게 용감히 싸웠는가를 알게 하고 국군과 유엔軍에 대한 親密感을 더욱 굳게 한다.

⑥ 共產主義는 우리 나라와 自由世界를 侵略하기 위하여 어떠한 方法을 쓰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共產宣傳 전술과 간첩 前술을 경계하게 한다.

이어서 1963年 2월에 改定된 「第2次 教育課程」에 나타난 統一·反共教育의 目標는 다음과 같다.⁴⁵⁾

◎ 1963年 第2次 教育課程中 統一·反共教育 關聯 目標

○ 教育課程 一般目標에서

民主的 信念이 확고하고 反共 精神이 투철하며, 民主的 生活를 發展시킬 수 있는 人間을 養成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학습 經驗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民主主義 理念과 그 價値에 대한 理解와 信念을 가지게 하기 위한 具體的인 學習 活動을 시킨다.

② 共產主義가 우리 나라와 自由世界에 끼치는 해들을 인식시켜 확고한 反共 認識을 양양하는 學習의 機會가 충분히 마련되도록 한다.

고 설정하고 있으며 教育課程의 全體 構造를 3개 영역⁴⁶⁾으로 區分하고, 그 중 「반공·도덕생활」의 目標를 <表 3>과 같이 展開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第3期에는 反共·勝共教育이 보다 強化·強調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統一의 문제에 대해서는 高學年 目標에서 ‘멸공 통일’을 내세우고 있으며 추상적이고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반공에 대한 것은 크게 강화되었다고 보이나, 統一에 관한 내용은 2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45) 文敎部, 「국민학교 教育課程」(서울: 문교부, 1963), pp. 13~16, 197~203.

46) 教育課程 — 教科活動 영역
— 反共·道徳生活 영역
— 特別活動 영역

으로 區分하고 있는바, 「反共·道徳生活」은 教科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생활 영역으로서의 위치였음.

〈表 3〉 1963年度 「反共・道德生活」 關聯目標의 展開

區 分	內 容		
反共・道德生活 領域 中에서	어린이로 하여금 확고한 민주적 신념과 생활 태도를 기르고 올바른 국민정신을 신장시켜 철저한 반공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는 학교 교육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용이 주도한 일관성 있는 종합적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反共・道德生活」目標 中에서	공산주의의 그릇됨과 아울러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닫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學年別 目標 中에서	저 학 년(1・2)	중 학 년(3・4)	고 학 년(5・6)
	※ 目標에는 表現이 없음.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세계에서 자랑할만 하다는 것을 알고, 공산주의의 죄악상을 깨달아 애국・애족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멸공 통일이라는 국가・민족의 지상 목표와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국가・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려는 결의와 태도를 가지게 한다.

라. 第4期(1972~1980);統一・反共教育 確立期

이 時期는 종전의 消極的・산발적 反共教育의 立場에서, 積極的・體系的인 統一・反共教育으로 轉換을 모색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國土統一院에서 시도되어 統一教育 教授指針書가 개발되고 文敎部에서도 統一에 대비하는 教育의 強化를 論議하기 시작하였다.⁴⁷⁾

47) 朴容憲, 前揭論文, pp. 29~30.

1973年 2月 다시 국민학교 教育課程의 全面 改編 公布를 하게 되면서, 內容도 크게 修正되었다.

제3차 教育課程에 있어서, 그 構造上의 두드러진 變化는 '教科 活動 및 特別 活動'과 아울러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지던 '反共 道德 生活'을 教科 活動에 포함시키고, 그 명칭을 '道德'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1963年 教育課程의 3대 領域 8個 教科가 1973年 教育課程에서는 2대 領域 9個 教科로 달라졌다. 이렇게 道德科를 하나의 教科로 다루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對한 설명을 「국민학교 教育課程」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이 점에 대하여 「국민학교 教育課程 해설」⁴⁸⁾에는 “도덕 교육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덕을 教科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變遷의 배경에는 1968年에 制定 公布된 '國民教育憲章'의 理念과 1972年의 '10月 維新'의 理念을 具現코자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教育課程의 內容 構成에 있어서도 이러한 理念을 바탕으로 構成하였으며 主體的 民族史觀에 입각한 價値觀을 확립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고 社會의 연대의식을 強化하려는 것이 그 改定 理由였다.⁴⁹⁾

새로운 도덕과 教育課程 內容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國民教育憲章에 제시된 20여개의 도덕 要素를 기반으로 하여 4개의 덕목 요소를 추출한 다음 이를 學年 程度에 맞도록 體系를 세워 나갔다.⁵⁰⁾

그리하여 중전의 教育課程에서 국민학교의 道德教育을 '예절 생활', '個人 生活', '社會 生活', '國家 生活'의 4個 域으로 나누던 것을 새로운 教育課程에서는 '國家 生活'과 '反共 生活'로 분리하여 5개 영역으로 하였다.

道德科 關聯 目標의 展開를 表로 만든 것이 <表 4>이다.

48) 교육과정 연구회, 「국민학교 教育課程 해설」(서울: 교육도서 주식회사, 1973), p. 55.

49) 「국민학교 教育課程」(서울: 고금문화사, 1973), pp. 7~11.

50) 洪雄善, 「初等教育課程」(서울: 敎學社, 1976), pp. 64~67.

〈表 4〉 1973年度 教育課程 道德科 目標中 統一·反共關聯目標의 展開

區 分	內 容		
教育課程 一般 目標 中에서	◎ 민주적 가치의 強調 ① 자유의 존귀성과 이에 따르는 責任을 理解하고 正當하게 努力하도록 한다. ② 민주주의의 여러 가치를 우리 奉托에 알맞도록 認識하고 實踐하게 한다. ③ 韓國 民主主義의 우수성을 認識하고 反共 信念에 투철하게 한다.		
教科目 中에서	民主主義의 優越함과 共產主義의 短弱함을 알고, 國土統一을 平和的으로 이룩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學年別 目標	저 학 년	중 학 년	고 학 년
	북한 共產 集團의 短弱함을 알고 나라를 지켜주는 分들에게 對하여 감사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북한 共產 集團이 저지른 罪惡상과 북한 동포의 慘狀을 알고 民主主義가 좋은 점을 알게 한다	북한 共產 集團의 罪惡상을 알고 平和統一을 이룩하려는 決心을 굳게 한다.

以上 第3期에 있어 反共·統一教育 關聯 教育課程의 變遷을 1963年の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새롭게 강조된 점으로는 첫째 도덕 教育의 實際적 成果를 올리기 위해 道德科가 獨立 教科가 되면서 수위 教科로 배치하여 道德科나 다른 教科의 教育 活動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體系化 하였다라는 점이다. 즉, 종래의 反共·道德 教育課程(1963年度)의 內容이 形式的 強調만이 되었을 뿐 산만하게 다루어져 의도한 成果를 뚜렷하게 거두지 못한 점을 시정할 수 있었다. 둘째, 종래의 국민학교 반공, 도덕 教育課程에서는 國民學校의 어린이들에게 깊은 道德的 理解와 判斷을 要求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見解였으나, 1973年の 教育課程에서는 道德的 判斷力의 指導가 도덕적 態度 形成과 아울러 重要하게 생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反共·統一教育에 대해서도 認知的인 接近을 하였다는 점이 重要하다.

세째, 道德科 教育課程에서 종전의 '멸공 통일'의 目標가 '平和的으로 國土 統一'

이라는 目標로 바뀌었음이 새롭다.

그래서 이 시기를 統一·反共教育에 대한 보다 계획적이고 組織的인 指導의 기틀을 마련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第5期(1981~1988); 統一·反共教育 調整 強化期

1978년에 들어서면서 教育課程의 改正 作業과 研究가 時代的 요청에 따라 進行되어 갔다. 1981年 12月 文敎部 告示 제442號로 제4차 教育課程을 公布하였다.⁵¹⁾ 새 教育課程의 세가지 基本 立場은 '國民 精神 教育', '全人 教育', '進路 教育'이라 하고 이를 3대 支柱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⁵²⁾ 國民 精神 教育은 지금까지 強調되어온 反共教育, 國民教育憲章 理念 教育, 國民 倫理教育, 새마을 教育 등 종래의 單편적 接近 方法들을 體系化하여 學校 教育에서 일관되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強調된 것이라 해설하고 있다.⁵³⁾

改正된 教育課程은 人間 中心 教育課程으로 그 기저를 이루면서 編制와 時間의 配當은 1973年 教育課程과 變化가 없다. 단지 저학년의 경우 아동들의 生活 領域을 확대하여 종래에 '道德', '國語', '社會'를 각기 다른 教科書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바른 생활'이라는 教科로 統合하여 운영하게 된 점이다.⁵⁴⁾

제4차 教育課程에서 道德科의 경우 중전의 5個 生活 領域을 '예절 생활'을 빼고 4個 영역으로 조정하였으며, 종래의 42個 德목을 21個로 줄여서 제시하고 있다.⁵⁵⁾

그러면 제4차 教育課程에 나타난 統一·反共教育 關聯 目標의 展開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요약 정리한 것이 <表 5>이다.⁵⁶⁾

51) 文敎部, 「국민학교 教育課程」(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3).

52) 文敎部, 「도덕」: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서울: 문교부, 1982), p. 9.

53) 淸炳, "새 育과정의 기본 철학," 「국민학교 育과정 해설」(서울: 育과학사, 1982), p. 43.

54) 文敎部, 「道德」, (1982), 前掲書, p. 9.

55) 李榮德, 「국민학교 育과정 해설」(서울: 育과학사, 1982), p. 98.

56) 文敎部, 「국민학교 教育課程」(1983), 前掲書, p. 10~17.

〈表 5〉 1981年度 教育課程 道德科 目標中 統一·反共關聯 目標의 展開

區 分	內 容		
一般 目標	일상 생활에 必要한 基本的인 예절과 道德的 規範을 理解하고 이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며, 道德적 생활을 自律的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教科目標 中에서	북한 共産黨의 그릇됨과 침략성을 경계하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理解하여 平和 統一의 信念을 가지게 한다.		
學年別 目標 中에서	저 학 년	중 학 년	고 학 년
	북한 주민들위 생활 참상을 알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북한 公産黨의 잔인성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고 북한 公産黨을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民主主義의 우월성을 理解하고 平和統一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제4차 教育課程 改正의 기본 방향에서 “學校 教育의 全般을 理念 教育의 立場에서 보고 教科의 정규 프로그램 이외의 課外 活動에서도 이를 要素로 活用하여 教育 內容으로 構成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⁷⁾ 고 밝히고 있듯이 統一·反共教育의 줄을 늦추지는 않으면서, 이를 國民 精神 教育의 次元으로 끌어 올리고 보다 認知的 領域을 부각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調整의 시도는 教育 目標의 陳述에 나타났듯이 1973年 教育課程의 目標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一般 목표 수준의 진술에서 다소 調整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이는 종래의 教育課程(1973)이 道德教育의 方向을 德目 中心의 教育으로, 道德的 德目을 行動으로 實踐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가, 새로운 教育課程에서는 實踐을 前提 條件으로 知的 理解가 앞서야 한다는 立場을 분명히하고 德目的 實踐과 함께 德目的 認知的 理

57) 文教部, 「道德」, 前掲書, p. 11.

解를 강조하였음이다. 즉, 道德的 規範에 대한 인지적인 理解를 바탕으로 規範의 실천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려했던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 方向에 따라 統一·反共教育의 方法도 ‘知共’이 많아졌다.

따라서 이 時期는 外形的으로는 종전과 큰 變化가 없으면서도, 內容的으로는 認知的 接近을 시도했던 統一·反共教育 調整·強化의 時期로 區分할 수 있겠다.

以上 5期로 區分한 時期別로 統一 및 反共教育 政策의 變遷過程을 概觀해 본 結果를 要約하고 그 特徵的 要旨를 表化하여 <表 6>과 같이 제시해 둔다.

<表 6> 時期別 統一·反共教育政策

時 期 區 分	主 要 教 育 政 策 內 容
第1期:民主市民教育強調期 (1946~1950)	○ 民主 市民 教育의 強調 ○ 民族의 獨立 自存 意識의 強調 ○ 目標 水準에서 統一·反共教育 內容 言及 없음 (民主·民族의 獨立의 強調로 反共·統一教育을 間接 表現)
第2期:反共教育確立期 (1951~1961)	○ 滅共 求國 精神의 強調 ○ 反共 思想教育을 道義 教育에서 言及
第3期:反共教育強調期 (1962~1971)	○ 反共을 第1의 國是로 함 ○ 道德 教科중 反共教育을 強化
第4期:統一·反共教育確立期 (1972~1980)	○ 消極的 反共 教育에서 積極的 反共·統一教育으로 轉換 ○ 國力培養과 總和團結로 平和的 統一 基盤 造成
第5期:統一·反共教育調整 強化期 (1981~1988)	○ 統一·反共教育의 理念的 體系化 모색 ○ 德目主義 教育에서 認知主義 教育으로의 轉換

IV. 統一·反共教育 內容의 變遷過程

해방이후 우리 스스로 만든 教育課程의 指針에 따라 各級學校의 全學年을 위한 教科書를 처음으로 發刊한 것은 1955年度의 일이다.

그 후 1959년에 道義 教科에 대한 改編이 있었고 1962년에 補完된 바 있다. 1963年度 부터는 1년에 2個 學年씩 教科書를 改編하는 作業을 始作하여 1966년에 全學年의 教科書 改編이 完了되었다.

1966年 부터 1972年 까지는 전면적 教科書 改編은 없었으며, 部分的인 修正 및 補完 作業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1972年 부터 다시 學年別 教科書 改編 作業이 始作되어 1974년에 完了하였다.

그 후 時代的 요청과 必要에 따라 1982年 새 教育課程과 함께 全面 改編된 教科書를 使用하게 되었으며, 이 教科書는 그 후 사소한 內容上의 오류를 고치고 時事性 있는 資料를 실기 위해서 部分的인 修正은 이루어 졌으나 根本 骨格은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本章에서는 統一, 反共教育 內容의 變遷過程을 살피기 위하여 教科書의 內容을 分析하고자 한다. 이러한 分析을 토대로 제V장에서 統一·反共政策과 統一·反共教育 政策이 教育 內容에 反映된 정도를 綜合 比較하는 基礎가 될 것이다.

우선 앞에서 概觀해 본 教科書 改編 過程을 <표 7>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表 7>에 제시된 教科書들을 分析 對象으로 삼아 全面 改編의 경우는 전 教科書를, 部分的 修正·補完의 경우는 그 部分만을 分析하여 教科書 內容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였다. 또한 分析된 內容을 '反共' 및 '統一의 必要性(당위성)', '統一의 過程'으로 나누어 教科書 變遷過程別로 그 특징을 比較하였다. 그리고 教科書 內容에 나타난 行動 特性別 分類에 따라 '認知', '情意', '行動'의 3個 영역으로 區分하여 年度마다 강조되어온 행동특성을 比較하고 있다.

1. 第2期 教科書 內容의 特徵

〈丑 7〉 教科書 改編 過程⁵⁸⁾

年 度	改 編 內 容	分析對象 教科書	卷 數
1955	· 全學年 全面 改編	1, 2, 3學年	3
1959	· 全學年 全面 改編	全學年 教科書	5
1962	· 28個 單位 內容 補完	1~6學年	6
1964	· 1, 2學年 教科書 全面 改編	1, 2學年	4
1965	· 3, 4學年 教科書 全面 改編	3, 4學年	4
1966	· 5, 6學年 教科書 全面 改編	5, 6學年	4
1966	· 23個 單位 內容 補完		
1967			
1969	· 3個 單位 內容 補完		
1972	· 1學年 教科書 全面 改編	1-1, 1-2	2
1973	· 2, 3學年과 4-1, 5-1, 6-1 教科書 全面 改編	2, 3學年 및 4-1, 5-1 6-1 教科書	7
1974	· 4-2, 5-2, 6-2 教科書 全面 改編	4~6學年 2學期 教科書	3
1982	· 全學年 全面 改編(1~2學年은 統合 教科)	3~6學年 教科書	8

第2期는 '제1차 教育課程'의 時期(55~62)로서, 1955年과 1959年의 教科書가 分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教科書 分析 카드와 이를 정리한 <表 8-1>, <表 8-2>를 통해 살펴보면,

<內容 構成面>에 있어서는 6·25와 관련된 생활소재를 중심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국군에 대한 애경심을 다루는 가운데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主8, 副1)과 6·25 북괴남침의 죄악상(主4, 副2) 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순수 반공에 관한 내용으로는 59年 教科書의 1학년 '6·25때의 이야기'(사실기록), 2학년

58) 朴容憲, 前揭論文, p. 34.

〈表 8-1〉 第2期 教科書 內容要素의 分析

內 容 要 素	年度別		1955		1959		소 계		領 域 別		
	教科書(學年)		1, 2, 3		1~6				統 一		
	主副區分		主	副	主	副	主	副	反共	必要性	過程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감사	2		6	1	8	1			○		
· 6·25북괴남침의 최악상	2	1	2	1	4	2			○		
· 북괴의 6·25남침의 과정		1	1		1	1			○		
· 자유대함과 공산북한의 실정비교			1		1				○		
· 원호정신의 고취			1		1				○		
· 세계 여러 나라의 반공투쟁			2		2				○		
· 공산주의 모순 비판			1		1				○		
· 의무이행(통일을 위한 노력)	1	1	1	1	2	2					○
· 공산군격멸, 군사훈련의 필요(통일의 과정)		1	1		1	1					○
· 이산가족 상봉(통일의 필요성)	1		1		2				○		
· 북한동포구출(통일의 필요성)	1		1	1	2	1			○		
· UN군에 대한 감사			1		1						○
· 소련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1	1				○		
· 중공군에 대한 적개심				1	1				○		
전체당원에 대한 통일·반공관련단원의 비율(%)	12.8($\frac{5}{39}$)		7.5($\frac{15}{199}$)								

〈表 8-2〉 第2期 教科書 內容의 行動特性別 分析

學年別 行動特性	1955			1959		
	認 知	情 意	行 動	認 知	情 意	行 動
저 학 년(1, 2)		50	50		40	60
중 학 년(3, 4)			100		66.7	33.3
고 학 년(5, 6)				45	55	
전 체 비 율(%)		40	60	20	53.3	26.7

‘외할머니’(공산주의 이론 모순), 5학년 ‘아시아 반공대회’(세계 여러 나라의 반공 투쟁), 6학년 ‘자유와 노예’(실정비교, 이론 모순) 뿐이다. 統一에 관련된 內容으로는 必要性으로 이산 가족 상봉(主2), 북한 동포 구출(主2, 副1)이 주요 내용이며, 統一的 과정으로는 의무이해(主2, 副2), 공산군 격멸(主1, 副1) 등의 내용이 全部이다.

〈教科書 內容의 水準 및 계열성〉에서는 55年 教科書의 2학년 ‘군대 아저씨’ 3학년 ‘착한 국군 아저씨’처럼 거의 같은 水準의 內容들이 반복되고 있다. 59年의 6학년 ‘자유와 노예’ 단원같은 것은 매우 높은 認知 水準과 難度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해주는 단원은 찾을 수 없다.

〈行動 特性別〉 분포는 〈表 8-2〉에 보듯 주로 情意的 측면과 行動的 측면 이데면 ‘공산당을 미워하고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며, 국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정답게 대한다’등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약 90%정도) 認知的 측면, 예를들면 ‘다같이 일을하고 다같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그들의 선전이 실현되려면……” 과 같은 내용은 매우 적다. (10% 정도)

2. 第3期 教科書 內容의 特徵

第3期는 ‘제2차 教育課程’의 時期(1963~1972)로서 1962年의 教科書 部分 改定과

64~66년의 전면 개편된 교과서가 그 分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教科書 分析 카드와 이를 정리한 <表 9-1> <表 9-2>를 통해 살펴보면 제2기에 비해 변화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內容 構成面>에 있어서 6·25북괴 남침의 죄악상(主20, 副5)을 강조하는 단원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국군에 대한 애경심 고취(主14, 副4)가 여전히 강조되면서 새로이 공산 북한 생활의 비참상을 부각시키는 내용(主15, 副6)이 強化되어 졌고, 간첩에 대한 경각심과 고발정신(主7), 民主·共產의 비교 우월성(主6, 副1), 그리고 북한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主6, 副3) 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全體的으로 북한 사회의 비참상을 다루어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공산당의 과거나 현재의 만행 그리고 적개심을 다룬 내용이 전체의 72%(72/10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反共 내용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강조되고 되풀이 되면서도, 統一에 대한 체계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등에 대한 표현이 없어 단순하고 추상적인 북한 동포 구출(主10, 副4) 등의 감정적 호소에 그치고 있다.

<內容의 水準 및 系列性> 측면에서 보면, 學年에 따른 수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고취, 6·25남침 죄악상 등의 수준이 별로 차이없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共產主義에 대한 이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66年度 6학년 “북한의 정치와 생활”, “자유와 노예” 같은 바람직한 단원도 있으나 이와 연결되는 저학년 또는 중학년의 내용이 없다. 統一 關聯 內容에 있어서도 體系性이나 水準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行動 特性別> 특징을 살펴보면 62年 64(%), 64~66年 66.1(%에 해당하는 內容이 情意的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며, 認知的 要素를 다루었던 내용들 조차 지나치게 감정호소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85~90(%에 해당하는 題材들이 情意的·行動的 內容들이다.

3. 第4期 教科書 內容의 特徵

第4期은 ‘제3차 教育課程’의 시기(1973~1981)로서, 73, 74年度에 改編된 教科書

〈表 9-1〉 第3期 教科書 內容要素의 分析

內容要素	年度別 教科書(學年)		1964 ~1966		소 계		領域別			비고
	1~6		1~6				反共	統一 必要性	過程	
	主	副	主	副	主	副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감사	8	2	6	2	14	4	○			
· 6·25북괴남침의 죄악상	8		12	5	20	5	○			
· 북괴의 6·25남침과정		1	2	2	2	3	○			
· 자유대한과 공산북한의 비교	1		1		2		○			
· 원호정신의 고취	2		3		5		○			2
· 세계 여러 나라의 반공투쟁				2	2		○			기
· 공산주의 이론 모순 비판			1	1	1		○			의
· 의무이행과 충실(통일을 위한 노력)				2	2			○		3
· 공산군 격멸, 군사훈련 필요	1	1	2	1	3	2		○		내기
· 이산가족 상봉(통일의 필요성)	1		2	1	3	1		○		용의
· 북한 동포 구출(통일의 필요성)	1	2	9	2	10	4		○		
· UN군에 대한 감사	1		3		4			○		내
· 소련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1	1	1	1		○		용
· 중공군에 대한 적개심				1	1			○		
· 민주·공산의 비교 우월성	2	1	4		6	1		○		
· 간첩에 대한 경각심·고발정신	2		5		7			○		
· 북한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	1	1	5	2	6	3		○		
· 공산북한생활의 비참상	3	2	13	4	15	6		○		
· 두력멸공통일	1	1	1	1	2	2			○	
· 북한에서의 반공투쟁			1		1			○		
전체 단원에 대한 통일·반공관련 단원의 비율(%)	19.4($\frac{43}{222}$)		26($\frac{59}{227}$)							

〈表 9-2〉 第3期 教科書 內容의 行動特性別 分析

學年別	年度別 行動特性	1962			1964~1966		
		認知	情意	行動	認知	情意	行動
저학년(1, 2,)			66.7	33.3		77.8	22.2
중학년(3, 4)		10	60	30		66.7	33.3
고학년(5, 6)		33.3	66.7		28.6	64.3	7.1
전체비율(%)		14.5	64	21.5	13.6	66.1	20.3

가 그 分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表 10-1〉, 〈表 10-2〉 및 教科書 分析 카드를 통해 제3기의 것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점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教科書 內容 構成面〉에 있어서 反共 關聯 內容이 종전과 별 차이없이 6·25복귀 남침의 죄악상(主9, 副2)을 강조하면서 북한 생활의 비참상(主8, 副4), 간첩에 대한 경각심(主5, 副2) 등이 강조되고 있다. 단지 그 表現에 있어 종전의 대등한 대결의 입장에서 우월한 입장으로 바뀌고 있음이 특기할만 하다 그리고 종전까지의 무력·멸공통일을 이룩하자던 內容이 삭제되고 국가 발전을 통한 평화통일(主1)이라는 내용으로는 바뀌었으며, 중공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도 삭제되었다. 새로이 추가된 反共 關聯 內容으로는 무장공비들의 만행(主4, 副1),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필요성(主3) 방위성금(主1) 그리고 時代性이 반영된 유신정신의 고양(主3) 등이다. 共產主義 理論의 모순성을 다루기 위한 單元으로 종전의 '자유와 노예' 단원과 함께 6學年의 '북한의 정치와 생활'을 두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

統一에 관련된 내용도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성금, 예비군과 민방위대, 평화통일 등 보다 具體的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종전에 원호정신의 고취를 반공 차원에서 다뤄 지던 것을 統一의 過程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內容의 水準 및 系列性〉에서 보면 발달 단계에 따른 學年 水準의 배려가 되고 있으며, 材題의 배열도 학년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들면, 저학년에서는 '죄악상 폭로', 중학년은 '북한 생활의 비참상 부각', 고학년에서는 '비교 우월성'을 다루는

〈表 10-1〉 第4, 5期 教科書 內容 要素의 分析

期 別(年度) 教科書(學年) 主副區分	4期 72.74		5期 82		領 域 別			비 고
	1~6		3~6		反共	統 一		
	主	副	主	副		必要性	過程	
· 국군에 대한 애경심, 감사	7		1		○			2 기 의 3 내 기 의 내 용 4 기 의 내 용 5 기 의 내 용
· 6·25북괴남침의 죄악상	9	2	2	4	○			
· 북괴의 6·25남침과정	2		1		○			
· 자유대한과 공산북한의 실정비교	1	2	1	1	○			
· 원호정신의 고취	2		2			○		
· 세계 여러나라의 반공 투쟁(체코, 헝가리)	2		1		○			
· 공산주의 이론모순 비판	2		3	2	○			
· 의무이행과 충실		2	1	4		○		
· 공산군 격멸, 군사훈련필요	※	삭제						
· 이산가족 상봉	3	1	2		○			
· 북한동포구출	4	2	4	3	○			
· UN군에 대한 감사	1			1		○		
· 소련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1		※	삭제	○			
· 중공군에 대한 적개심	※	삭제						
· 민주·공산의 비교 우월성	4		3	1	○			
· 간첩에 대한 경각심 고발정신	5	2	2		○			
· 북한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만행	9	5	8	3	○			
· 공산북한 생활의 비참상	8	4	3	3	○			
· 무력멸공통일	※	삭제						
· 북한에서의 반공투쟁(신의주의거)	1		1		○			
· 북송교포의 비참상	2		1	1	○			
· 무장공비들의 만행, 적개심	4	1	2		○			
· 방위성금의 필요성(통일의 과정)	1			1		○		
· 예비군 민방위대의 필요성(통일의 과정)	3		※	삭제		○		
· 국가의 중요성(적화된 베트남)	1		1	1		○		
· 유신정신의 고양으로 반공	1		※	삭제	○			
· 북한 공산당의 종교탄압	1			1	○			
· 국민단결과 국가발전, 평화통일	1		2			○		
· 우리 정부의 통일노력(남북대화)			1			○		
· 통일의 미래상			1			○		
· 북괴의 호전성과 흉계			5	1				
· 북한 공산당의 역사·문화 왜곡			2		○			
· 통일의 정당성과 통일의지			4	5	○	○		
전체단원에 대한 통일·반공 관련단원의 비율(%)	22.1($\frac{55}{249}$)		21($\frac{55}{256}$)					

〈表 10-2〉 第4, 5期 教科書 內容의 行動特性別 分析

學年別	時期(年度) 行動特性	4期(72, 74)			5期(82)		
		認知	情意	行動	認知	情意	行動
저학년(1, 2.)		11.2	44.4	44.4			
중학년(3, 4)		14.5	52.2	33.3	22.4	33.4	34.2
고학년(5, 6)		40	40	20	48.8	39.7	11.5
전체비율(%)		25.5	45.5	29.0	37.3	37.7	25.0

內容으로 배열되고 있음이다. 그리고 종전의 극단적으로 적개심을 고취시키려던 內容과 表現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음도 수준 향상의 일면이다.

〈行動特性別〉 배분의 특성을 〈表 10-2〉 통해 보면 지금까지의 情意的 行動特性的 강조에서 벗어나 認知·情意·行動의 各領域에 대한 배려가 있었음이 나타난다. 고학년의 경우는 情意와 認知的 요소를 40(%)씩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제재들도 감정 호소적 기반위에 전개되고 있다.

4. 第5期 教科書 內容의 特徵

第5期는 '제4차 敎育課程'의 시기(1982~1988)로서 82年度에 全面 改編된 教科書가 그 分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表 10-1〉, 〈表 10-2〉에 나타나고 있듯이 제5기의 內容 要素는 제4기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으나 몇가지 특징을 살필 수 있다.

먼저, 〈教科書 內容 構成面〉에 있어서 6·25 북괴 남침의 죄악상(主2, 副4)를 폭로하는 內容이 줄어든 반면, 공산주의의 모순(主3, 副2)과 함께 새로이 북괴의 호전성과 흉계(主5, 副1), 국가 발전과 평화통일(主8, 副3)과 공산 북한 생활의 비참상(主13, 副3)은 더욱 強化되고 있다. 한편 소련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고취가 삭제되고 있음도 時代性的 반영으로 보인다.

統一 關聯 內容으로는 보다 現實的 材題들이 補完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펼치는 남북대화(主1),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主1), 그리고 통일의 정당

성과 통일외지(主4, 副5) 등 보대 적극적 統一教育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內容 構成面에 있어서는 제4기의 것을 답습하면서 統一教育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하겠다.

〈內容의 水準 및 系列性〉면에서는 한 단원의 主題에 따른 소주제 단원(1차시분)을 2~3個씩 두는 형태로 教材가 배열되면서 ‘사실의 이해’(1차시)→‘적용, 신념화’(2, 3차시)라는 認知的 思考 過程을 밟을 수 있도록 敎材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발달 단계에 따른 학년 수준의 배려가 있었다. 그러나 全般的인 敎材의 內容이 북한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내지 증오심의 유발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귀결되게 짜여지고 있어서 ‘끝을 안보고도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식의 구성이 되고 있어 구성의 계열 및 내용 수준의 단계적 향상 등의 의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行動 特性別〉 배분의 특징을 〈表 10-2〉를 통해 살펴보면 종전에 비해 한층더 認知的 內容이 強化되고 있다.



V. 統一政策과 統一·反共教育의 變遷 比較 分析

本章에서는 前 Ⅲ章에서 살펴본 統一·反共教育의 變遷을 分析한 結果를 Ⅱ章에서 살펴본 統一政策의 變遷과 比較·分析하여 봄으로써 統一政策이 教育政策에 어떻게 反映되어져 왔는지 與否와 過程(研究目的 I 과의 關聯)

統一·反共教育政策으로서의 教育指針(또는 方針) 및 教育課程上的의 目標가 제Ⅳ장에서 變遷을 分析한 教科書 內容에 反映된 與否와 정도를 比較·分析(研究目的 2 와의 關聯)하고자 한다.

1. 統一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의 比較

論議의 편이를 위하여 먼저 統一政策과 통일·반공교육정책의 變遷過程을 比較·要約한 內容을 <表 11>과 같이 제시한다.

<表 11>을 통해, 살펴보면, 時期別로 統一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에는 몇차례의 의미있는 變遷이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第1期>에 있어서는 '滅共統一論'을 내세워 反共武力統一政策을 부르짖을 때 教育政策은 '民主市民教育'을 강조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第2期>에 있어서는, 表明된 統一政策은 'UN결의에 따른 남북 총선에 의한 통일'이나 教育政策으로 나타난 教育目標에는 '滅共 求國精神의 함양' '멸공통일'이 되어 통일정책과 교육정책이 상호 상반되는 기현상을 보였다.

<第3期>부터 통일정책과 통일·반공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통일정책이 철저한 反共의 基盤위에 統一論式 자체 보다는 統一을 위한 힘을 키우는 '先建設 後統一'의 政策을 내세운 것과 보조를 맞추어 教育政策도 62年度에 道德 教材 우선 改編을 통한 反共教育의 강화 그리고 63年度의 2次 教育課程에서 '철저한 反共教育의 強調'로 나타났다. 그러나 消極的 統一政策이 표방되긴 하였으나 統一方案 자체는 平和的 統一政策을 표방하였는데 비해, 63年度 教育課程 高학년

〈表 11〉 時期別 統一·反共政策과 教育政策의 比較

時 期	統 一 政 策	教 育 政 策
第 1 期 (1946~1950)	· 反共·武力統一政策	· 民主市民教育의 確立 (統一·反共教育目標 提示 없음)
第 2 期 (1951~1961)	· 統一·獨立·民主韓國建設 · UN決議에 따른 南北總選	· 滅共·求國精神의 함양 · 滅共·勝共思想 고취
第 3 期 (1962~1971)	· 平和的 統一政策 · '先建設 後統一'의 政策 ·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總選	· 反共教育 強化 · 滅共統一
第 4 期 (1972~1980)	· 段階的 平和統一 政策 · '先平和 後統一' · 평화정착, 교류, 총선의 3원칙	· 積極的 統一反共教育 · 國力培養을 통한 平和的 統一教育
第 5 期 (1981~1988)	· 對話·交流·開放 ·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 · 7·7선언	· 體制比較를 통한 統一反共教育 · 知共的 反共教育 (북한의 생활비참상 부각)

目標에는 “멸공 통일이라는 국가 민족의 지상 목표와……”로 나타나 滅共統一論이 教育課程으로 추진되었음을 보이고 있어 統一政策과 상반되고 있으며 統一과 關聯된 教育政策의 反映도 매우 미흡하였다.

〈第4期〉에 와서는 國家의 統一政策이 국제적 和解 무드와 對北經濟力 우위에 기초를 두고 ‘先平和 後統一’의 政策이 표방되었다. 統一·反共教育政策도 중전의 消極的 統一·反共教育에서 보다 積極的 現상을 보였다. 73年度 3次 教育課程을 보면 教育目標에 “……國土統一을 平和的 으로 이룩하려는 마음과 ……”, 高학년 목표에 “북한 공산 집단의 죄악상을 알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결의를 다진다”고 밝히고 있듯이 제4기에 들어서야 教育政策에도 平和的 統一教育으로 수정되어 있다.

〈第5期〉에 들어서는 第5共和國 政府가 歷代 어느 政府 보다 統一問題에 積極적 자

세를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80年代의 國內外 情勢에 따라 國家의 統一政策도 對話·交流·開放에 의한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教育政策은 70年代의 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對話 時代', '外交 開放 時代'에 맞는 統一·反共 教育에 대한 政策的 제시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산발적이며, 體系性이 미흡한 국민 정신교육의 強調, 共產主義 비판교육, 사상교육 등의 수많은 指針들이 쏟아져 오히려 教育政策이 혼선을 빚은 때이다. 따라서 國家의 統一政策과 統一·反共教育政策과는 많은 갭(gap)이 발생하였다.

2. 統一·反共教育 政策과 教育內容의 比較

統一·反共教育 政策이 教科書 內容 속에 어떻게 反映되어져 왔으며 一貫性이 있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教育政策과 教育內容 分析의 要旨와 強調點을 간추려 <表 12>와 같이 比較表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살펴본다.

<第1期>인 1945年 부터 1950년에 이르는 동안은 統一·反共에 對한 教育 目標나 內容을 찾아볼 수 없다.

<第2期>부터는 教育課程 속에 滅共의 精神이 스며들어 教育內容으로 反映되기 始作하였는데, 그 내용은 6·25 남침의 죄악상을 알고 적개심 내지 증오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59年度의 目標에는 "공산주의의 부당성을 깨닫고 이를 분쇄하는 결의를 갖는다"고 했는데 教科書 內容에는 주로 情意的 要素인 죄악상, 적개심, 신념 등의 강조이며 그 부당성을 깨닫는데 해당되는 내용은 滅共·勝共統一의 目標가 "각자의 의무이행으로 멸공 통일을 이룩하여 이산 가족 상봉의 숙원을 이루자"는 내용으로 反映되어 있어 教科書 內容 속에도 國家의 統一政策과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第3期>에는 反共教育이 정책적으로 強化되어 62年度 目標에는 政治制度·戰略·戰術·人間의 基本權과 自由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教科書 內容에는 주로 6·25 남침의 죄악상과 함께 북한 생활의 비참상을 부각시켜 강조하고 간첩에 대한 경계 등으로 強調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情意的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

〈表 12〉 時期別 統一·反共教育政策과 教育內容의 比較

時 期	教 育 政 策	教 育 內 容(강조내용)
第 1 期 (1946~1950)	· 民主市民教育의 強調	※統一·反共에 대한 內容 없음
第 2 期 (1951~1961)	· 滅共·求國의 함양 · 滅共·勝共思想의 고취	· 6·25남침 최악상을 알고 적개심 · 各자의 의무이행으로 멸공통일 이룩 이산가족 상봉의 민족속원 성취 · 國군에 대한 애경심
第 3 期 (1962~1971)	· 反共教育 強化 · 滅共統一	· 6·25남침의 최악상, 북한생활의 비참상 · 民主·공산의 비교 우월성과 승공통일 · 간첩경제·고발정신, 무력멸공통일이룩
第 4 期 (1972~1980)	· 積極的 統一·反共教育 · 國力培養·總和團結을 통한 平和的 統一	· 6·25남침 최악상 알고 적개심 증오심 · 북한생활의 비참상과 비교우월 · 간첩에 대한 경각심, 고발정신, 무장 공비만행 · 국가발전을 통한 평화통일로 북한동포 구출, 이산가족상봉
第 5 期 (1981~1988)	· 세계 우위를 바탕으로 統一·反共教育 · 知共에 의한 積極的 反共	· 6·25남침 최악상 축소 · 북한생활의 비참상, 공산주의 모순 강조 · 북괴의 호전성과 흉계 · 통일의 정당성 평화통일 의지

요소들로서 目標에서 요구하고 있는 認知的 사실에 의한 信念化 보다는 教化(indoctrination)에 흐르는 지도가 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教育목표가 要求하는 認知的 要素 이를테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나 창의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

를 깨닫게 한다”는 목표에서 “어떻게”에 해당되는 내용은 거이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정치제도”, “어떻게 침범……”, “침략하기 위하여 어떠한 方法……” 등의 目標가 모두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 이와 같이 3기 초에는 目標-內容 間에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며 一貫性이 결여되고 있다. 63年度 改定된 教育課程에 의한 64~66 年の 教科書에는 비교적 教育目標가 教育內容속에 제대로 反映되고 있다.

〈第4期〉에 積極的인 統一·反共教育의 강조와 平和的 統一 教育政策 강조에 따라 강조된 教育內容은 6·25 남침 罪惡상을 알고 적개심과 증오심을 고취하며, 북한 생활의 비참상 부각과 체제 우월성, 간첩에 대한 경각심 등이 강조 되고 있고, 국가 발전을 통해 平和統一을 이룩하여 북한 동포를 구출하고 이산 가족을 상봉시키자는 내용들로 전개되었다.

73년도 教育課程에서 改定の 基本哲學으로 제시한 내용 중에 “統一에 대비하는 反共教育”을 강조하고 있으나 教科書 內容은 정의적·行動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의 方法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개정된 내용의 形式的 부분 수정에 그친점이 많고 새로운 내용은 시기적 필요에 의한 삽입 강조되었을 뿐이므로 教育目標를 충분히 일관성 있게 反映하였다 할 수 없다.

〈第5期〉에 있어서는 체제 우위를 바탕으로 한 통일·반공교육정책이 展開되어 북한의 침략성을 경계하고 평화 통일의 신념을 갖게하고자 했던 정책에 따라 教科書에 反映된 것은 6·25 남침 罪惡상이 축소 되면서 반면에 북한 생활의 비참상과 북괴의 호전성·흉계 그리고 공산주의의 모순 등의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통일의 정당성과 신념 등이 다루어 지고 있다. 5기에 있어서는 대체로 教育目標가 教育 內容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 졌다고 보이나, 反共教育의 內容 構成이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적개심 내지 증오심의 유발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귀결되고 있어서 內容의 現實感과 적정성 등은 고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I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目的은 統一政策의 變遷에 따른 教育政策으로서의 教育課程과 관련 內용의 變遷 그리고 教科書 內容의 變遷을 分析해 보고 統一·反共政策이 教育政策에, 統一·反共教育政策이 教育內容에 어떻게 反映되어져 왔는가는 살펴봄으로써 教育政策과 教育內容의 改善에 관련 示唆點을 提供하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統一政策의 變遷을 文獻研究를 中心으로 살펴보았고 統一·反共教育政策의 變遷을 教育課程 改編 中心으로 살펴보았으며, 教科書 分析을 통해 教育內容의 變遷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研究 目的 I 과 관련하여서는 統一·反共政策에 따른 教育政策의 變遷過程은 第1期(1946~1950); 反共 武力 統一政策 — 民主市民教育의 強調, 第2期(1951~1961); UN監視下 南北總選 — 減共 求國精神의 確立, 第3期(1962~1971); 平和統一政策 — 反共教育 強化, 減共統一, 第4期(1972~1980); 段階的 平和統一政策—反共教育의 確立, 平和統一, 第5期(1981~1988); 對話·交流·開放에 의한 民族和合 民主統一 方案 — 統一·反共教育의 調整·強化 등으로 要約된다. 第1期과 第2期에는 統一·反共政策이 教育政策에 전혀 反映되지 않거나 相反되어 있으며, 第3期에는 反共政策은 反映되고 있으나 統一政策은 상반되고 있다. 第4期에 와서 統一·反共政策이 教育政策에 比較적 一貫性과 體系性을 갖추고 反映되기 시작하였으나, 第5期에는 統一政策의 變化에 따른 教育政策에의 反映 程度가 미약하였다.

研究 目的 II 와 관련하여서 統一·反共教育政策이 教育內容에 反映되기 시작한 것은 第2期인 1955年度 부터이나 反映된 程度는 一貫性이 없었으며, 第4期의 시작인 1972年度 부터 比較적 일관되게 반영되어 갔다. 教育目標와 內容에서 일관되게 강조된 內容은 북한 公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 내지 憎오심을 갖게하는 內容이었으며 이는 目標-內容간에 잘 반영되어 졌다. 그러나 그밖의 教育目標는 教科書 內容으로 잘 反映되고 있지 못하며 특히 共產主義의 不當성과 理論의 모순을 깨닫게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育成한다는 目標는 되풀이 하여 提示되어져 왔으면서도 教科書

內容에는 消極的이고 感傷的인 內容의 반복만으로 이루어져 目標가 잘 反映되고 있지 못하다.

研究 目的 Ⅲ과 관련하여 고찰할 때, 앞으로 우리의 統一·反共教育의 發展 指向的 改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들로 示唆하는 것은,

첫째, 統一·反共政策과 教育政策 간에 一貫性 있는 教育目標의 正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下位 目標들이 보다 具體的이며 系列性和 連繫性이 있게 進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教科書 內容의 系列性 側面에서 아동의 知的 成熟度에 따라 體系적으로 다루어져 점차 깊이와 넓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內容의 連繫性에 대한 構成을 補完해야 할 것이며, 教育內容 水準을 各級 學年의 知的 水準에 맞게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內容의 측면에서 共產主義 理論의 파악 및 批判 能力 습득에 관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단순 感情的 批判과 體制 批判 만으로는 反共教育이 成果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公산주의에 대한 精確한 이해와 批判을 前提로 해서 共產主義 理念의 흐름중 변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公산주의 이데올로기와 體制에서 根本的인 것에 着점을 두어 그 內容을 國民학교 아동 수준에 맞게 再構成하여 다룬다면 理論에 대한 批判 能力의 습득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公산주의의 실제 파악 및 비판 능력 습득에 관하여 教科書에서 ‘헝가리의 반공 투쟁’(5-2)을 실화를 통해 제시, 公산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오늘날 公산 사회의 변화이유, 변화내용 및 변화방향에 대한 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본적인 內容을 다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教科書에서 北韓 共產主義의 體制 파악 및 批判 能力 습득에 관해 다루어져 온 내용은 6·25 라는 역사적 사실과 김일성 우상화 등에 대한 內容만을 반복적으로 매 학년마다 다루어져 오고 있어 根本的 意圖와는 다른 效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北韓 共產 政權의 수립과 전개 과정, 北韓 共產 體制의 性格, 對南 革命 戰略 등을 파악하고 비판 이해하는 能力을 기르도록 構成의 방향과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教科書 題材들의 選定에 있어 現實性和 참신성을 잃지 않도록 선정·進술되어야 한다. 구태의연한 資料, 만화식 삽화, 과장된 감정적 表現 등의 경직된 재제들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研究 結果들에서 살필 때 우리의 統一·反共教育의 政策 및 內容이 매우 경직되어 있어 國內外 情勢 變化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으며, 같은 내용들은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어 思考를 자극하여 판단하게 하는 認知的 內容이 미약하였고, 水準面에 있어서도 아동의 지적 발달단계에 따른 고려가 미약하였다. 또한 국가의 政策과 教育政策 그리고 教育 內容 간에 一貫성과 體系성을 유지해오지 못하였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統一政策의 變遷에 대응하는 統一教育의 變化는 앞에서 살폈듯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즉, 적극적·感情的 反共, 消極的 統一教育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어쩌면 統一教育은 '反共'과 '統一'이라는 論理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反共이 곧 統一 努力 처럼 教育되어져 왔다. 이는 時代的·政治的 여건의 未成熟과 국민학교 아동의 발달 단계와도 유관한 것은 사실이나 教育 立案者의 자신감 결여에서도 연유되고 있다. 2000年代의 주역임을 일깨워 주는 教育이 民族 최대의 課題인 統一의 문제에 대해 消極的이었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끝으로, 앞으로의 統一·反共教育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고전적 단순 注入式의 教育과 內容에서 벗어나 祖國 統一의 당위성 인식, 大韓民國의 平和 統一政策, 南北韓 統一政策 比較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民族의 同質性 回復이라는 기본 시각하에서 교육정책과 내용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統一·反共政策은 民族同質性 回復의 차원보다 적대감·증오심 우선의 教育이 이루어져 물리적 分斷과 함께 教育의 과오가 심정적 分斷을 일으켜 왔음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教育 內容과 방법은 根本的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대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미래적 통일정책과도 부합되어 心理的 통일 여건 조성에 教育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單行本)

1. 教育大學校職科教材編纂委員會. 「教育基礎」, 교육출판사, 1973.
2. _____, 「兒童教育心理學」, 교육출판사, 1973.
3. 「국민학교 教育課程」, 배영사, 1969.
4. 「국민학교 教育課程」, 고금문화사, 1969.
5. 「국민학교 教育課程 해설」, 교육도서, 1973.
6. 「국민학교 教育課程 해설」, 교육과학사, 1988.
7. 金相俊. 「國際政治理論 II」, 三英社, 1980.
8. 金鳳守 外. 「국민학교 教育課程」, 教友社, 1963.
9. 金鳳官 編. 「文教關聯 法令集」, 興文社, 檀紀4287(1954).
10.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博英社, 1987.
11. 國土統一院. 「南北對話白書」, 國土統一院南北對話事務局, 1982.
12. 文敎部. 「국민학교 教育課程」, 文敎부, 1955.
13. _____ 「국민학교 教育課程」, 文敎부, 1963.
14. _____ 「국민학교 教育課程」, 文敎부, 1983.
15. _____ 「국민학교 教育課程」, 文敎부, 1987.
16. _____ 「국민학교 경영지침」, 敎학도서, 檀紀4293(1960)
17. _____, 「이념敎育지도방법 개선자료」, 文敎부, 1983.
18. _____, 「바른생활」: 국민학교 敎사용 敎과용 도서 2. 文敎부, 1975.
19. _____, 「바른생활」: 국민학교 敎사용 敎과용 도서 3. 文敎부, 1975.
20. _____, 「바른생활」: 국민학교 敎사용 敎과용 도서 4. 文敎부, 1975.
21. _____, 「바른생활」: 국민학교 敎사용 敎과용 도서 5. 文敎부, 1975.
22. _____, 「바른생활」: 국민학교 敎사용 敎과용 도서 6. 文敎부, 1975.
23. _____, 「도덕」: 국민학교 敎사용 지도서 3-1, 3-2. 文敎부, 1982.

24. _____. 「도덕」: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4-1, 4-2. 문교부, 1982.
25. _____. 「도덕」: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5-1, 5-2. 문교부, 1982.
26. _____. 「도덕」: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6-1, 6-2. 문교부, 1982.
27. 閔榮順. 「教育心理學」, 교육과학사, 1984.
28. 문용린 외, 「道德科 教育의 問題와 展望」. 한국교육개발원, 1986.
29. 박상만. 「한국 교육사」: 하권. 대한교육연합회, 1959.
30. 「새 教育課程의 理論的 基底」. 배영사, 1983.
31. 實踐教育硏究會. 「國民學校 教師指針」. 港都出版社, 檀紀4289(1956)
32.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第2輯」. 서강대학교출판부, 1986.
33. _____. 「統一 韓國의 摸索·環境과 政策敵 努力」. 博英社, 1987.
34. 李榮德 外. 「국민학교 教育課程 해설」. 교육과학사, 1982.
35. 外務部 編. 「韓國外交 30年: 1948~1978」(서울: 信興印刷, 1979).
36. 鄭元植 編. 「知力과 情意의 教育」. 배영사, 1976.
37. 鄭世九 外. 「初·中·高 反共關係 教科書 內容 構成 및 編纂方向에 관한 研究」.
한국교육개발원, 1985.
38. 中央教育硏究所 編. 「教育課程 指針」. 徐明源 譯. 대한교육연합회 檀紀4289年.
39. 成宗圭. 「教育課程 沿革調查」. 淑明女子大學校, 1983.
40. 黃禎奎. 「學校學習과 教育評價」. 교육과학사, 1985.
41. 洪雄善. 「初等教育課程」. 教學社, 1976.
42.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남북대화」제44호(1988).
43. 「教育學 大辭典」. 교육과학사, 1988.

(論文)

1. 강광식. “남북 대화 시대의 反共教育.” 「도덕과 教育의 問題와 展望」. 교육개발원, 1986.
2. 康宗炫. “중학교 國民倫理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教育大學院, 1983.

3. 강위인. “대화시대의 통일 안보교육의 方向 -中學校 과정을 中心으로.” 國民倫理學會 濟州支會 夏季세미나, 1985. 6.
4. 고성준. “민주화·개방화 시대의 공산주의 비판 교육.” 「개방화 시대의 理念教育」. 국민윤리학회 제주지역세미나, 1988.
5. 金世源. “南北韓經濟交流의 推進方向.” 「統一論叢」 제2권2호(1982. 12). pp. 15~16.
6. 南營達華. “韓國·中共·北韓의 國民精神教育 比較 研究 -教科書를 中心으로-.” 「國民倫理研究」第24號. 國民倫理學會, 1987.
7. 민병천. “국제관계와 통일문제.” 제주신문사 통일문제 특별 강연회, 1986. 6.
8. 朴容憲. “初等學校 教科書에 反映된 統一·反共教育의 變遷過程分析 研究.” 國土統一院 政策企劃院, 1979.
9. _____. “初·中·高·大 國民倫理(도덕) 教育內容의 재검토.” 교육개발원, 1982.
10. 辛世浩. “學校에서의 反共·統一教育의 問題와 改善 方向.” 「國策研究」(1986. 겨울호). 민주정의당 國策연구소.
11. 梁榮植. “韓國 統一政策의 變遷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87.
12. 李常民. “고르바초프의 改革 政策과 展望.” 「國際問題」(1988. 3), pp. 32~40.
13. 鄭世九. “國民倫理教育의 未來의 性格과 課題.” 「國民倫理研究」제25호. 국민윤리학회, 1987.
14. 鄭鎔碩. “新 데탕트와 새 統一課題” 「자유공론」(1988. 3), pp. 42~53.
15. 鄭鐘喆. “國民學校에서의 國民精神教育에 關한 研究-國家象徵에 對한 意識形成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建國大學校 大學院, 1984.
16. 정천구. “올림픽 개최와 統一論議.” 「국민정신」(1988. 7), pp. 12~15.
17. 趙政男.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理念.” 「國民倫理研究」제26호, 한국국민윤리학회, 1988.
18. 池教憲. “初·中·高校 道德·國民倫理 教育의 歷史的 背景과 現況.” 「國民倫理研究」제23호(I). 국민윤리학회, 1986.

19. 韓點洙. “韓國統一政策의 變遷과 展望.” 「第3回 在美學者, 招講 統一問題學術大會·論文集」(서울: 국토통일원, 1987). p. 287.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Unification and
Anti- Communist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
In Relation to the Transition of Unification
and Anti- Communist Policy.

Hong, sung Wook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Kun Hy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iew the improvements of educational policy and contents through analyzing the transition of curriculum and the related contents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unification policy. I have examined the transition of unification policy through referring to documents, that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education polic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that of educational conten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extbook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transition process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policy and their education policy have been divided into 5 stages as follows; 1st stage(1946~'50) : Anti-Communism and armed unification policy-emphasisi on the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

2nd stage(1951~'61) : The general elec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under the surveillance of U.N.-the establishment of the spirit of the strong anti-Communism and patriotism

3rd stage(1962~'71) : Peaceful unification policy—the strengthening of anti-Communist education and the unification of strong anti-Communism.

4th stage(1972~'80) : Stepped peaceful unification policy—the establishment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education, peaceful unification.

5th stage(1981~'88) : National harmony and democratic unification policy by means of dialogue, exchange, and opening—the adjustment and strengthening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education.

For the period of 1st~2nd stage, the policy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had not been reflected competely, or contradicted in the education policy. For the 3rd stage, the policy of anti-Communist was reflected, but the policy of unification was contradicted.

For the 4th stage, the policy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was beginning to have been reflected consistently and ststematically in the education policy. For the 5th stage, the transition of the unification policy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education policy nearly.

second, since 1955 of the 2nd stage, the policy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was beginning to be reflected far from consistency. But since 1972 of 4th stage, the reflection of that policy was going on with consistency.

Hostility and abhorrence to communist had been stressed consistently in both educational object and its contents. Such object had been reflected to the contents well. The other educational objects had not been reflected. Especially the object, which brings up the capability to be able to realize and criticize the injustice of Communism and theoretical contradiction, had not been reflected nearly because it had been handled passively and sentimentally in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Third, the contents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education were so rigid that they could not cope with the change of domestic and external situation. They were only following the same contents. The cognitive contents

to make decision by stimulating thought were very weak.

As the above results, the improvements in the policy and the contents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education are to preview as follows : The policy of unification and anti-Communist education must be developed under our ultimate goal that realize the liberal democracy. The education course must be administrates with flexibility.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must be made up to enable the cognitive thought and maintain the systematization. Those of the textbooks must get out of the classical and cramming education in contents as well as method, and be formed and reorganized on the premise that the recovery national hamogeneity with the comparis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unification policy and the recognition of peaceful unification policy in South Korea and the righteousness of national unification.



謝 辭

本人이 碩士學位論文을 쓸 수 있을 때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感謝를 드립니다.

論文을 성심껏 指導해 주신 康根亨 教授님, 恆時 激勵과 有益한 말씀을 주신 李萬成 教授님, 金恒元 教授님, 그리고 本人이 論文 資料收集에서 끝맺음을 할 때까지 많은 도움과 資料를 제공해 주신 高性俊 教授님과 강영구, 김진선 선생님께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本人의 오랜 시간 동안의 晝耕夜讀 하는 生活로 인해 生活의 피로와 역경을 참고 이겨야 했던 아내 禹蓮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 秀晶 이 賢基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